

# 정읍시, 올 일자리 창출 97% 달성

### 3차 일자리정책추진단 회의 9980개 일자리 창출 성과 공유 신중년 디지털 취업 연계 논의도



지난 24일 정읍시청에서 송금현 부시장 주재로 2024년 정읍시 일자리정책 추진단 회의가 열렸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신중년·디지털 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올해 '제3차 일자리정책추진단' 회의를 열어 3분기 일자리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9980명의 일자리를 창출, 목표 대비 97.1%의 성과를 달성했다. 주요 일자리 창출은 3단계 상생일자리 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이다.

이번 회의에는 정읍고용복지+센터, 전북과학대 산학협력단, 취업중개센터, 청년지원센터 등 4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각 기관의 일자리 성과를 공유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했다.

또 시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구직자 연령층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 및 디지털 성인문해 전문교육사 취업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신중년층의 경력과 기술을 살린 일자리 지원은 물론 디지털 성인문해 교육 수요자들의 취업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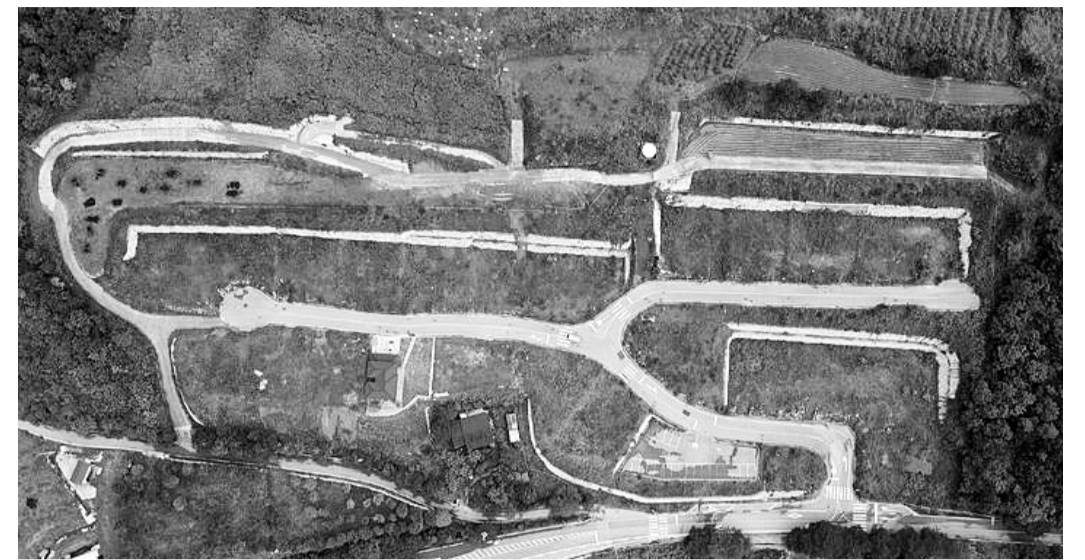
정읍시 일자리정책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송금현 부시장은 "논의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

과 디지털 성인문해 교육사 취업 연계 방안을 바탕으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도시민에 '전원마을 주택단지' 분양

### 정읍시 '산내면 장금지구' 선착순...최고 4층까지 주택 건축



정읍시가 전원마을로 신규조성한 장금지구 전원 주택단지.

정읍시가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자 조성한 '산내면 장금지구 신규마을 주택단지'를 선착순으로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장금지구 신규마을'은 산내면 장금지리 1771번 일원에 2만4975㎡ 규모로 조성된 전원마을이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 공사는 이미 완료됐으며 분양대상은 전체 20필지다.

분양 면적은 400-670㎡이며 분양 가격은 ㎡당 16만-17만원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건폐율 60%, 용적률 80%로 최고 4층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장금지구는 시내와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에 아름다운 옥정호가 있어 전원생활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옥정호는 섬진강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로 유역 면적 763㎢, 총 저수량은 4억3000만㎥에 이른다. 특히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신비로운 풍광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어 전원생활의 매력을 더해준다.

분양 면적은 400-670㎡이며, 분양 가격은 ㎡당 16-17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주택은 최고 4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자체 주도로 신규 조성한 전원마을 단지 분양은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도시민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임금님 진상하던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 확정

### 군, 복분자주·복분자 이어 세번째...땅콩·멜론·보리도 등록 추진

임금님 진상품으로 알려지며 과거부터 명품 수박으로 이름난 '고창수박'의 지리적표시 등록이 확정됐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수박연합회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이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고창수박의 프리미엄 가치 향상은 물론 향후 땅콩, 멜론, 보리 등 우수농특산품의 지리적표시제 성공 가능성도 함께 높아졌다.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은 고창수박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 농산물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수박재배능가와 고창군이 진행해 오던 숙원사업이다.

앞서 지역농가들은 그동안 마을 개별작목반으로 활동했던 농가모임을 2020년 사단법인 고창수박연합회로 통합 발족하고 품질인위화를 위한 재배 매뉴얼을 만들어 지리적표시제를 신청했다.

여기에는 고창수박이 정의되고 시장에 내놓을 수박품질(당도 11브릭스 이상, 1기작 등) 기준이 포함됐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과 가공품의 품질, 특성 등이 본질적으로 상품의 원산지인해 생겼을 경우 제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표시하는 제도다.

지명에 상표권을 부여해 품질과 개성을 높이는 지리적표시제도 덕분에 이제부터는 다른 곳에서는 합부로 '고창수박'의 이름을 붙일 수 없게 됐다.

고창군은 국내 대표적인 수박 주산지인 1970년대 대단위 야산 개발지에 재배를 시작해 50년 이상의 재배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현재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 매년 6월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수박축제를 개최하며 전 국민에게 고창수박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고창수박연합회 김연호 대표는 "오랜 시간 준비하고 여러 차례 고창과 서울을 오가며 고생한 날들이 좋은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2004년 '고창복분자주', 2007년 '고창복분자' 이어 올해 '고창수박'까지 세 가지 품목이 지리적표시로 등록됐다.

군은 땅콩, 멜론, 보리 등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품에 대해서도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남원 임산부 행복한 출산 돕습니다

### '임산부의 날' 기념 출산교실·모유수유클리닉 등 행사

남원시보건소가 올해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오는 10월 한 달 동안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자보건법'에 의해 제정된 '임산부의 날'은 매년 10월10일로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기념행사는 ▲두근두근, 출산 준비교실 ▲임산부 애크림 인증 이벤트 ▲가정방문 모유수유클리닉 ▲영유아 부모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산부는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임산부 영양제 지원, 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생아 탄생 기념품 지원 등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임산부 영양제 지원, 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생아 탄생 기념품 지원 등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남원시, 키보드 안전 사고 예방 강화

### 속도 제한·범법 행위 단속 등

남원시가 키보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운영업체와 손을 잡았다.

남원시는 26일 남원경찰서, 남원교육지원청, 키보드 운영업체인 더스윙과 키보드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키보드 이용 활성화에 따른 안전 문제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키보드 최고 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하고 거치대 및 주차 구역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방지된 키보드를 최대 2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남원시는 이와 함께 무면허 이용,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범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하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 등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 전국 132개 서비스망